

# 천막결사 90일, 연인원 10만명 상월선원 찾았다

## 사부대중과 함께 한 위례천막결사

불기 2563(2019)년 11월11일 한국불교의 중흥과 대한민국의 화합, 세상의 평화를 발원하며 아홉 스님이 위례 상월선원에서 동안거 결제에 들었다. 난방시설도 없는 비닐하우스 임시 선원에서 묵언과 하루 한 끼 공양, 14시간 정진을 이어간다는 소식에 전국의 불자들이 상월선원에 찾아와 스님들을 응원했고, 흰색 펜스에는 저마다의 서원이 담긴 6만개의 연등이 걸렸다. 상월선원 종무소에 따르면 지난 90일간 연인원 10만여명이 상월선원을 방문해 아홉 스님의 정진을 찬탄하고 힘을 더했다.

△사부대중의 기도·순례처 되다=아홉 스님의 용맹정진이 진행된 상월선원은 11월11일 입제식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이어졌다. 결사가 시작될 즈음 상월선원에는 하루 100여명이 다녀갔고, 입제식 후에는 서울과 상월선원 인근 주요 사찰 신도회를 중심으로 하루 평균 300여명이 방문했다. 이후 불교계뿐 아니라 일반언론과 유튜브, SNS 등 곳곳에서 상월선원 소식이 소개되면서 개별 동참은 물론 신행모임, 순례모임 등의 방문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12월에 접어들면서 참배객 수는 하루 평균 100여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불자들의 원력도 속속 결집됐다. 동안거 결제 후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불자들의 자발적 정진자리가 마련됐다. 불자들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석가모니불 정근, 108배, 참선, 탑돌이 등을 이어가며 천막결사에 임한 스님들의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12월 첫 토요일부터는 토요일과 함께 철야정진도 병행됐다. 첫 번째 철야정진에는 조계사, 봉은사, 포교사단 등 300여명이 동참했으며, 두 번째 철야정진에는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비롯해 사부대중 500여명이 함께했다. 1월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현장을 찾아법문을 하기도 했다.

△문화·예술 어우러진 문화공간=지난 90일, 상월선원에는 말 그대로 아난 법석이 펼쳐졌다. 기도와 정진, 발원이 담긴 불자들의 정근 소리는 물론 아홉 스님을 응원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법음이 넘쳐 흘렀다. 첫 무대는 천진불들의 공연이 장식했다. 12월7일 서울 은석초등학교 불자모임 연화회 소속 어린이 30여명이 찾아와 음성공양을 올렸다. 어린이들은 노래와 연주 등 그동안 학교에서 갖고 닦은 실력으로 방문객들을 미소 짓게 했다.

1월10일에는 전국의 사찰 합창단이 모



위례 상월선원은 지난해 11월11일 천막결사를 시작한 날부터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이어졌다. 지난 90일간 이곳에는 연인원 10만여명이 찾아와 아난법석을 펼치며 새로운 신행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갔다.

결사 소식 전해지며 찬탄·응원 쇄도...하루 평균 1천명 방문

어린이부터 사찰 합창단까지 법음으로 결사 원만회향 기원

묵언·14시간 정진 결사체험 '무문관'에는 110명 이름 올려

여 음성공양을 올렸다. 박범훈 불교음악 원장이 마련한 합창제에는 서울 조계사, 봉은사, 수곡사 등 10개 팀이 참여해 아름다운 화음으로 스님들의 결사를 응원했다. 당초 한차례 기획됐던 합창제는 전국 사찰의 동참 열기에 1월15일, 1월21일 두 차례 더 개최됐다. 상월선원 마당에 설치된 특설무대는 한겨울 칼바람이 고스란히 전달됐지만, 합창단원은 물론 청중들도 뜨거운 열정과 박수, 환호로 추위에 맞서며 스님들의 정진에 힘을 더했다.

또 2월4일은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와 감사,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찾아와 전통무용과 노래, 합주가 어우러진 종합예술무대를 선보였다. 이밖에 국악인 김성녀, 안숙선, 가수 장사익, 권미희를 비롯해 김덕수 사물놀이패 등이 용맹정진 중인 스님들을 응원했다.

△천막결사·용맹정진을 체험하다=11월말, 상월선원에는 임시 선원을 축소해 놓은 '무문관'이 설치됐다. 무문관은 최대 4명이 묵언과 하루 한 끼 공양, 14시간 정진 등 스님들의 정진과정을 그대로 체험하는 공간이다. 12월7일 이기흥 조

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이 무문관 첫 체험자로 나섰고, 이어 중앙종회의장 범혜, 수석부회장 장명, 차석부회장 법원 스님이 입방했다. 중앙종회의원과 법보신문, 현대불교 등 교계 언론사 대표, 신도단체 임원 및 재가불자 등 총 110명이 무문관 입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무문관은 당초 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참가신청이 이어져 한 주 더 연장해 2월 첫 주말까지 진행했다. 12월 22~23일 무문관을 체험한 본지 김형규 대표는 "1박2일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지만 혹독한 추위와 공사장 소음은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환경이었다"며 "불자들의 독경과 격려가 큰 힘이 됐고, 불편함 속에 그동안 누린 편안함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가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에게 죽비를 봉정하고 있다.

## 상월선원결사 회향 스님들에 죽비 봉정

법보신문, 성남 불국사서 전달

글씨·서각 등 전문가 동참 제작

'증도가' 경구와 스님 범명 새겨



2월7일 위례천막결사가 회향됐다. 회향식이 끝난 이후 스님들은 총도감 해일 스님이 주지로 있는 성남 불국사에서 안거 일정을 마무리했다. 법보신문은 스님들과 함께 불국사로 이동해 결사안거의 원만회향을 발원하며 지난 100일간 열과 성을 다해 제작한 죽비(사진)와 죽비걸이를 봉정했다. 이날 죽비봉정에는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가 직접 참여했다. 김 대표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에게 삼배를 올린 후 정성스레 죽비를 봉정했으며, 이를 본 스님들과 외도대중이 함께 박수로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죽비를 봉정 받은 자승 스님은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법보신문이 많은 역할을 했다"며 법보신문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형규 대표는 "위례천막결사가 원만히 회향되고 또 안거에 든 스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뜻을 모아 죽비를 제작했다"며 "죽비와 죽비걸이에 결사에 임하는 스님들의 결연한 의지와 의미를 오롯이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법보신문은 안거가 시작되기 10일전부터 죽비제작에 착수했다. 죽비는 전남 나주공방에서 제작했으며 서울과 나주를 오가며 수차례 회의 끝에 죽비의 재질과 글씨, 모양, 크기 등을 최종 확정했다. 그리고 죽비제작 계획에 따라 기획과 제작, 서각, 글씨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속속 동참했다.

죽비는 단단하고 잘 깨어지지 않으면서 소리가 청아한 산벚꽃나무로 제작됐다. 대나무 죽비는 글씨를 새기기 어렵고 세월이 지나면 삭는 특성을 고

려해 제외됐다. 아홉 스님들에게 봉정된 죽비는 80cm 크기로 일반 죽비보다는 크고 장군죽비보다는 작은 중간 크기다. 죽비양면에는 '증도가'의 경구와 위례천막결사 회향을 기념하는 글씨를 새겼다. 특히 '증도가'의 '大丈夫 秉劍劒嚴若鋒兮金剛 敵大장부병해검 반야봉해검강엄'은 "대장부가 지혜의 검을 잡으니 반야의 칼날이요 금강의 불꽃"이라는 뜻으로 이반 결사를 원만 성취한 스님들의 깨달음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또 뒷면에는 위례천막결사원만회향 글씨와 함께 스님의 범명을 각각 새겼다.

죽비걸이도 함께 제작했다. 사찰전각의 창호문양을 형상화하면서도 고졸한 기품을 담기 위해 일체의 문양을 새기지 않았다. 재질은 5년 건조한 목백합 나무로 견고하고 단단함이 특징이다.

죽비제작에는 꼬박 100일이 걸렸다. 기획과 밑그림을 담당한 다현 이은데, 깎고 다듬은 목원 최광문, 생명을 불어넣은 글씨를 새긴 적현 임재국, 아름다운 글씨로 품격을 더한 우석 박근진 선생 등이 함께 했다. 봉정된 죽비는 천막결사의 뜻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역사적인 증표가 될 것이다. 이로써 상월선원 결사 스님들의 안거를 외호하기 위한 법보신문 구성원의 100일간의 죽비제작 과정도 죽비 봉정식과 함께 여법하게 마무리됐다.

불국사=남수연 기자namsy@beopbo.com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 동방불교대학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 추가모집 공고

### I.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중흥(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독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독도수계산임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득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학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법학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중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 II. 지원자격

-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독도수계산임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학한 승려로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일반 재가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 III. 모집인원 및 편제

1. 모집학과 : 불교학과, 법학학과(2년제 정규반)
2. 모집인원 : 각과별 00명(정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 ●전형료 : 5만원  
●입학금 : 20만원  
●등록금 : 학기당 100만원

♣ 특전 : 본 종단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시 선덕 법계 품수

### IV.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0년 2월 10일 ~ 2020년 2월 25일  
- 인터넷 교부 : 동방불교대학 홈페이지www.dongbang.org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03062 서울시 중로구 용곡로 1길3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서류심사 : 2020년 2월 26일(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합격자 발표 : 2020년 2월 27일(목) 개별통지 및 본교 홈페이지(www.dongbang.org)

### V. 접수서류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 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독도수계자는 가사장상 수한 모습)

### □ 입학문의

TEL : 02\_745\_2030, 010-3089-9983  
FAX : 02\_733\_0728

### 한국불교태고종 총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우)03062 서울시 중로구 용곡로 1길31(사간동112)

회향

# 嘉會尹永花展

## 법화경 · 화엄경

## 사경 회향 및 서화전

통도사 승가대학 서예 지도강사이자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인  
가회 윤영화 선생의  
법화경 · 화엄경 사경 회향 및 서화전이 열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0. 2. 17(월) - 23(일)  
부산시청 제3전시실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초대일시. 2020. 2. 17(월) 오후 5시 Mobile. 010-3577-9613

妙法蓮華經 (묘법연화경)

華嚴經 (화엄경)

가회 윤영화  
(嘉會 尹永花)

부산아트페어 부스개입전  
회향-가회윤영화전(부산시청갤러리)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  
부산시예대전 초대작가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부산서가협회 초대작가  
월간서예문인회 초대작가  
부산시예대전 심사위원  
부산미술대전, 부산서가협회 심사위원  
현통도사 승가대학 서예지도강사